

# G-Welfare Weekly Report

## 01

### 중앙정부 정책동향

#### 1. 9월 7일은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 01 주요 내용

- 보건복지부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라는 주제로 “제17회 사회복지의 날” 을 기념하는 행사 개최(2016.9.7.)
  -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는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 로 규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99.9.7을 기념)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①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 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일을 ‘사회복지주간’ 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기념식에서는 그간 우리사회 곳곳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유공자 159명에 대해 국민훈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등을 수여
- 오늘 행사에서는 “따뜻한 눈길로 찾아주고! 보듬는 손길로 안아주고!” 라는 슬로건으로 사회복지 캠페인 선포식도 진행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
- 아울러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청계천 모전교에서 광통교 사이 천변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사회복지주간 기념 전시 행사가 개최
  - 생애주기를 나타내는 연령대별 캐릭터 등을 제작하여 영유아부터 노년까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요 복지 정책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 대표복지포털 “복지로” 에서 “복지서비스 찾기” 검색 서비스를 체험해볼 수 있는 체험 공간 운영, 인증사진 이벤트도 진행
- 각 시·도별로도 기념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경기도 행사는 9월 22일 오후 2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개최될 계획
-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기념하는 ‘세계 사회복지의 날(World Social Work Day)은 매년 3월 셋째 주 화요일로 지정되어있음
  - 세계 사회복지의 날은 1983년 UN(United Nations) 사회복지사들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의 업적을 기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비전을 공유하며 국제적 연대를 촉구
  - 2016년 세계사회복지의 날은 3월 15일이었으며 올해 세계사회복지의 날 주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증진” 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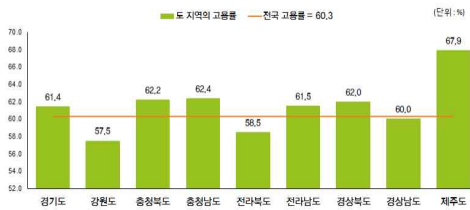
## 2. 경기도 취약계층 고용률 전국 보다 낮고, 시군간 격차 커

### 01 주요 내용

- 일자리 관련 경기도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경기도 고용률은 61.4%로 전국(60.3%)보다 약간 높지만, 도(道)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여섯 번째로 높지 않은 수준이며, 시군별로는 이천시(64.3%)와 과천시(52.9%)간 11.4%p 차이가 남

\*통계청(2016)  
e-지방지표  
(2016.9.5. 검색)

〈전국 및 도 지역의 고용률(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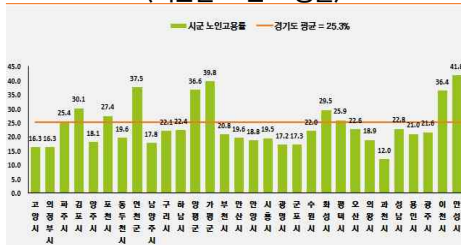
〈경기도 및 31개 시군 고용률(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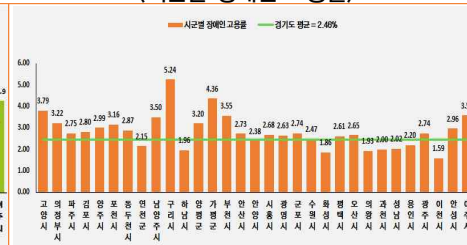
- 특히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고용률\*\*은 각각 25.3%, 2.46%로 전국(30.6%, 2.53%)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관련 예산이나 일자리 참여자 수가 시군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경기도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수는 각각 40,988명과 2,336명이며, 관련 예산은 745.5억 원과 231.3억 원임
  - 시군별로 일자리에 참여한 노인과 장애인 수 및 예산 규모는 차이가 크며, 일자리 예산과 고용률 간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통계청(2016)  
e-지방지표  
(2016.9.5. 검색)  
통계청(2016)  
경제활동연구조사

〈시군별 노인 고용률〉



〈시군별 장애인 고용률〉



- 경기복지재단(2016)의 '경기도민 복지실태조사' 에 따르면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의 만족도는 70.9점이며, 노인일자리와 장애인일자리 만족도는 각각 67.6점과 62.6점으로 나타남
  - 노인 일자리 만족도 항목 중 근무시간(71.7점)과 일의 내용(70.9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임금 및 소득수준(66.9점)이 가장 낮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속적·안정적 소득원이 되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음
  - 장애인일자리 만족도 항목 중 일의 내용(66.6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복리후생(57.2점)과 임금 및 소득수준(58.3점)이 낮게 나타났는데, 시간제 개념의 일자리 사업의 비중이 높기 때문
- 취약계층의 고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지도는 사회적기업(26.4%)과 협동조합(28.2%)을 제외하고는 20%미만으로 낮고, 이용률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지도는 마을기업(13.2%), 농어촌공동체회사(12.8%), 복지공동체(10.5%), 따복공동체(6.8%)의 순으로 낮았고,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이용률은, 사회적기업(0.7%), 협동조합(2.3%), 마을기업(1.1%), 농어촌공동체회사(0.7%), 복지공동체(0.7%), 따복공동체(1.1%) 순으로, 공동체 단위의 사업을 통한 일자리 확산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

### 02 경기도 시사점

- 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만족도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일자리사업을 보완
- 복지공동체, 사회적기업 등 지역 단위의 일자리정책을 확대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도모

# 02 사도/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

## 1.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

올해 경기복지재단이 실시 중인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기초자료를 토대로 도내 31개 시군별 일자리사업 참여자 규모 및 관련예산 규모를 비교

- ‘일을 통한 복지’가 점차 강조되면서 일자리사업은 투입 예산을 늘리고 일자리 유형을 다양화하는 등 사업규모를 대폭 확대
  - 일자리사업의 주요 대상은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며, 사업 유형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노인일자리사업·장애인일자리사업·일자리상담 등으로 분류
- 도내 시군별 대표적 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참여자 규모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예산 규모에서는 장애인일자리사업의 지역별 편차가 크게 존재
  - 노인일자리사업은 사업 참여자 수에서 노인인구 1만명 당 동두천-용인 간 약 713명의 격차가, 장애인일자리사업은 1인당 예산에서 포천-양주 간 약 496만원(연간)의 격차 발생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 경제활동인구 1만명 당 사업 참여자 수는 구리-남양주 간 약 114명, 1인당 예산은 여주-연천 간 약 173만원(연간)의 격차 발생

\*출처 경기도 내부 통계자료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희망근로사업,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가사간병관리서비스, 작업훈련 자원사업임

〈표 1〉 경기도 시군별 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예산 규모

| 지 역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        | 노인 일자리사업 |        | 장애인 일자리사업 |        |
|-----|------------|--------|----------|--------|-----------|--------|
|     | 참여자 수      | 1인당 예산 | 참여자 수    | 1인당 예산 | 참여자 수     | 1인당 예산 |
| 고 양 | 39.4       | 1,047  | 264.3    | 1,782  | 45.9      | 9,730  |
| 의정부 | 83.5       | 1,216  | 304.9    | 1,874  | 41.8      | 10,436 |
| 파 주 | 47.7       | 1,196  | 180.1    | 2,186  | 36.1      | 9,872  |
| 김 포 | 48.4       | 1,752  | 248.5    | 1,836  | 32.6      | 10,665 |
| 양 주 | 61.3       | 2,115  | 248.6    | 1,855  | 76.4      | 6,329  |
| 포 천 | 79.0       | 1,864  | 305.5    | 2,052  | 42.2      | 11,293 |
| 동두천 | 99.5       | 1,541  | 873.8    | 1,901  | 99.7      | 8,345  |
| 연 천 | 97.9       | 722    | 426.5    | 2,109  | 65.5      | 9,872  |
| 남양주 | 29.3       | 1,467  | 224.4    | 1,867  | 29.6      | 9,782  |
| 구 리 | 143.1      | 1,256  | 344.9    | 1,781  | 55.4      | 8,933  |
| 하 남 | 79.3       | 1,782  | 299.8    | 1,871  | 103.2     | 8,893  |
| 양 평 | 113.5      | 1,147  | 479.0    | 2,005  | 83.2      | 9,937  |
| 가 평 | 110.1      | 1,779  | 495.7    | 1,913  | 48.4      | 8,094  |
| 부 천 | 72.1       | 1,787  | 315.7    | 1,873  | 34.2      | 9,929  |
| 안 산 | 69.7       | 1,089  | 419.4    | 1,650  | 29.1      | 9,659  |
| 안 양 | 47.9       | 1,627  | 273.2    | 1,861  | 53.3      | 9,268  |
| 시 흥 | 110.4      | 1,428  | 597.1    | 1,600  | 39.4      | 9,323  |
| 광 명 | 123.9      | 1,100  | 445.1    | 1,540  | 54.3      | 9,130  |
| 군 포 | 70.3       | 1,453  | 437.0    | 1,653  | 49.1      | 9,339  |
| 수 원 | 58.8       | 1,591  | 287.3    | 1,630  | 29.0      | 10,712 |
| 화 성 | 69.0       | 1,218  | 319.5    | 1,840  | 37.4      | 10,319 |
| 평 택 | 45.5       | 1,665  | 264.0    | 2,017  | 35.3      | 10,418 |
| 오 산 | 43.3       | 1,867  | 510.7    | 1,668  | 59.5      | 10,226 |
| 의 왕 | 82.3       | 987    | 615.0    | 1,709  | 63.4      | 10,037 |
| 과 천 | 71.3       | 1,213  | 371.9    | 2,011  | 175.4     | 8,949  |
| 성 남 | 68.6       | 1,230  | 292.1    | 1,711  | 42.0      | 11,083 |
| 용 인 | 34.8       | 1,198  | 160.7    | 1,915  | 38.5      | 9,632  |
| 광 주 | 47.2       | 1,566  | 248.0    | 1,952  | 28.0      | 9,449  |
| 이 천 | 72.8       | 1,384  | 389.7    | 1,699  | 64.0      | 9,111  |
| 안 성 | 85.9       | 1,386  | 224.6    | 2,070  | 58.4      | 9,840  |
| 여 주 | 97.5       | 2,451  | 349.7    | 1,924  | 77.9      | 9,339  |

(단위 명, 천원)

## 2. 재단 주요행사 안내

| 사업명              | 주요내용  |
|------------------|---|
| 2016 제1차 복지 콜로키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시 : 9. 9.(금) 15:00</li> <li>• 장 소 : 경기복지재단 교육장</li> <li>• 주 제 : 정치로 보는 한국 사회복지 발전사 (발제 : 성경룡 교수)</li> <li>• 참 여 : 복지현장 종사자, 경기도, 도의회 및 관심 있는 경기도민 등</li> </ul> |

# 03 FACT CHECK

## 노인과 청년,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 전쟁 중?

- “청년이 연장되면 청년은 고용 절벽”, “아르바이트 시장에 중년층이 몰리면서 세대 간 구직 경쟁이 치열” 등 고령화가 세대 간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킨다는 주장이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산업연구원의 보고서(2015)\*\*에 따르면, 국내 청년층과 고령층의 서비스업 취업 분야는 양극화되어 있어 두 연령층이 동일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청년층 취업이 특화된 서비스업은 보건 의료, 관광, 콘텐츠 분야이며 교육, 소프트웨어, 전문 과학기술서비스, 음식점·주점에 상대적으로 집중
  - 반면 고령층은 서비스업 취업비중 자체가 낮은 상태이며 취업도 사업지원서비스, 부동산·임대, 물류, 공공행정·국방 등 단순노무 업종으로 편중
- 또한 공공의 노인 일자리사업의 경우에도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문화재 해설사, 공동작업장, 어린이 안전지킴이처럼 청년층 일자리와는 성격이 다름
-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는 일본의 경우도 “청년들은 고령층과 다른 유형의 직업을 가지며, 이들이 일자리를 놓고 직접적으로 경쟁하지는 않는다” 라고 가와이 마사히로 도쿄대 명예교수는 설명\*\*\*
- 고령층의 근로 참여는 부족한 노동 인력을 충당하는 수단으로 의미가 있고, 청년 일자리는 미래 사회를 지탱할 동력으로 중요
  - 양질의 일자리를 통한 청년 실업률의 감소, 노인 빈곤의 감소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과장된 일자리 논쟁과 세대 간 갈등이 해소될 것이며,
  - 청년층이 새로운 기술과 역량을 갖추 수 있는 교육 및 고용안정에 더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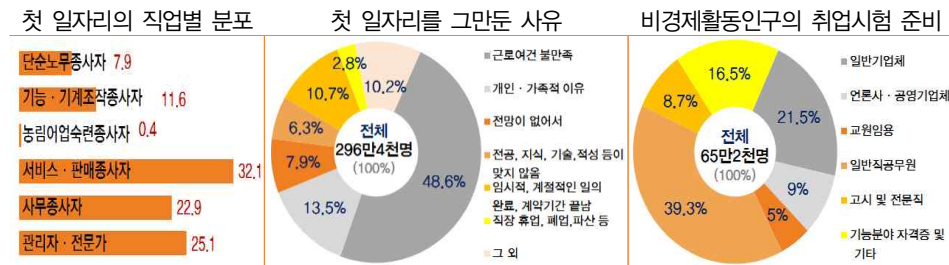
\*한국경제매거진. (2013.2.18.일자 기사.) 청년 실업 2030 vs 은퇴한 5060, 알바 전쟁 '후관'

\*\*산업연구원 (2016). '부모-자식 간 서비스업 일자리 경쟁 가능성 낮아'

\*\*\*이코노미조선 (2016.8.24.).한 국도 저성장 극복 위해 아베노믹스 도입해야...청년 연장해도 청년 일자리 줄지 않아.

# 04 통계로 보는 복지

## 청년의 경제 활동



자료 : 통계청, 201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 청년들의 첫 일자리는 서비스·판매종사자(32.1%), 관리자전문가(25.1%), 사무종사자(22.9%) 순으로 나타남
- 첫 일자리를 그만둔 사유는 근로여건 불만족(보수, 근로시간 등)이 48.6%를 차지
  - 개인·가족적 이유(건강, 육아, 결혼 등)는 13.5%,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계약기간 끝남도 10.7%로 조사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시험 준비자는 65만2천 명(13.1%)이며, 취업시험 준비분야는 일반직공무원(39.3%), 일반기업체(21.5%) 순으로 높았음

\*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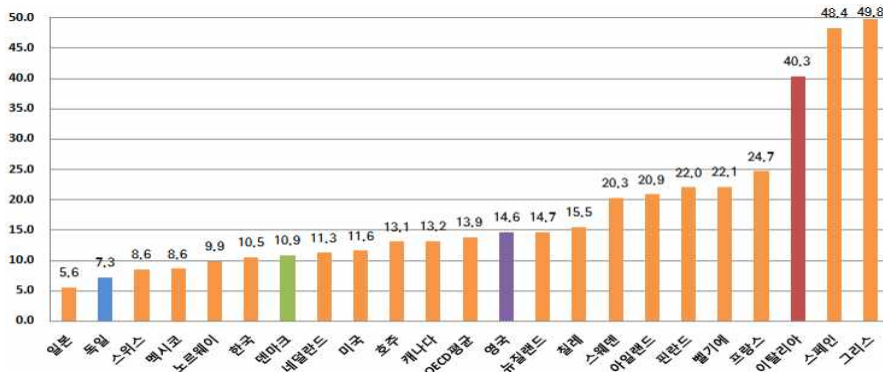
# 05 해외동향

## 유럽의 청년 일자리 사업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높은 청년실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을 위한 제도와 프로그램의 현황을 살펴 봄

- 경기도의 벤치마킹 사업이 될 이탈리아 토스카나주 '지오바니 시 프로젝트'
  - 5월 초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유럽 4개국을 방문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이탈리아 토스카나주를 찾아 청년실업 해법에 대해 논의, 남토스카나주의 대표적 청년일자리사업인 '지오바니 시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경기일자리재단 프로그램에 접목할 계획

〈OECD 가입국의 청년실업률(15~24세)〉



\*단위: %  
자료 : OECD (2015)

- 2015년 이탈리아의 청년실업률은 40.3%로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오바니 시 프로젝트는 청년 자립을 지원하며 인턴십, 주택 등의 6개의 프로젝트 분야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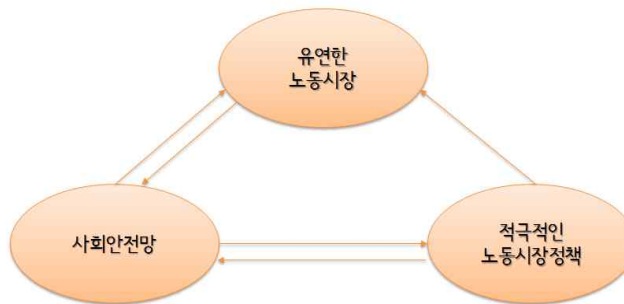
| 프로젝트 분야 | 세부 내용   |
|---------|---|
| 인턴십     | 교과과정 인턴십 및 전문 견습제는 학사,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있거나 견습 중인 청년이 참여할 수 있고 매월 500유로의 임금을 지급하는데 주정부가 참여 기업에 300유로를 지원하며 참여 기업의 인턴 임금 지급 의무가 없음<br>비교과과정 인턴십은 18-29세 청년 참여 가능하며 토스카나 주는 참여 기업과 함께 인턴에 매월 500유로(기업 부담금 300유로)의 임금 지급 |
| 주택      | 18-34세의 청년(토스카나주 2년 동안 거주했던 청년)에 한함이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과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3년간 월 150-300유로의 월세를 지원  |
| 공공서비스   | 지역 NGO 및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운영되며 18-29세 청년 대상으로 의료, 환경, 교육, 문화 등의 공공서비스 분야에 참여 가능하며 8개월 간 월 433유로를 지급  |
| 창업      | 18-40세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정부가 창업비용을 보조해 주고 소액대출을 제공하며 농업 분야의 창업을 원하는 청년에 4만 유로의 보조금 지급  |
| 취업      | 코워킹 스페이스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동료에 배우처 등의 인센티브 제공  |
| 교육 및 훈련 | 배우처, 장학금 및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의 인센티브 제공   |

- 참가대상은 40세 이하의 토스카나 주민이나 프로젝트 분야별로 나이제한이 있으며 지오바니 시 인턴십 참여자의 40% 이상이 취업에 성공하는 성과를 달성
- 독일은 '이원적 교육시스템'을 통해 교육과 직업훈련을 통합하여 직업시장의 미스매칭 문제를 최소화
  - 사업장에서의 훈련과 직업학교 교육을 결합함으로써 실무능력과 이론을 병행하는 제도로 여타 국가에서 독일의 성공적인 견습제도를 모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으나 직업교육 및 훈련이 교육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보다는 이차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치고 있음
  - 독일만이 갖고 있는 이원제도의 강점으로는 ①전일제 근무로 성공적인 이전을 준비시키고, ②기업, 정부, 노동조합 및 상공회의소 등 사회적 파트너의 높은 참여 수준, ③공공 및 민간 재정을 결합한 탄탄한 자원, ④독일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원 등을 통한 조직적인 연구로 이원

제도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

- 독일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견습제도 참여율(2012년, 16-29세 청년 대상)을 보이고 있으며 독일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원(BIBB)에서 2014년 발간한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2012년 이원 제직업교육제도에 참여한 청년의 평균 나이는 20세, 이원제도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실시되며 직업군별로 소요기간이 다른데, 보통 2년에서 3년 반이 소요
- 월 평균 교육보수가 2013년 구연방주에서는 767유로(한화 약 94만원, 전년대비 4.1%증가), 신 연방주에서는 708유로(한화 약 87만원, 전년대비 5.0%증가)
- 2014년 여성이 선호하는 직업으로는 사무직이 압도적인 1위, 판매원과 의료보조 등이 그 뒤를 따랐고, 남성의 선호 직업으로는 자동차 기술자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기계가공조립산업기사와 판매원이 그 뒤를 따름
- 덴마크는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을 통해 일자리 매칭을 촉진
  - 유럽 국가 중 비교적 낮은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덴마크는 노동시장의 높은 유연성으로 비교적 해고가 쉬워 노동자의 직장안정성(Job security)은 낮지만 사회보장제도로 인한 높은 고용안정성(Employment security)으로 낮은 실업률을 기록
  - 유연안정성(Flexicurity) 모델을 보면 덴마크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정책에 개입하고 관대한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갖추고 있음

[덴마크 유연안정성 모델의 '황금트라이앵글 구조']



- 2013년 덴마크는 GDP의 3.49%를 노동시장에 지출, 적극적 노동 프로그램(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직접적 고용창출 등)에 지출한 비용은 GDP의 1.82%이며 소극적 노동 프로그램(실업수당 지출 등)에 지출한 비용은 2013년 GDP의 1.66%로 OECD 국가들 중 최대 지출
- 이처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이 가장 높은 덴마크는 1994년에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본격화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직업훈련을 비롯한 인적 자원개발에서 일자리 매칭의 촉진으로 정책 초점을 전환함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으로의 위탁은 30세 이하의 경우 실업 3개월 이후, 19세 이하의 경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참석은 의무적이고 최대 3년 간 지속
- 세계경제위기 이전에는 청년층만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별도로 없었으나, 위기의 여파로 청년 실업이 증가함에 따라 15~19세를 대상으로 한 조기 개입 정책을 시행
- 영국의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내년 4월 부과 예정
  - 영국에서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독일의 성공한 견습제도를 모방, 내년 4월부터 연간 임금 총액이 300만 파운드를 넘는 기업에 임금 총액의 0.5%를 걷는 '견습세(apprenticeship levy)를 부과할 계획
  - 정부는 견습세를 재원으로 삼아 2020년까지 견습직 300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음
  - 정부가 내놓은 계획에 따르면 A기업이 견습세로 10만 파운드를 내면 최소 10만 파운드 상당의 바우처를 받으며 A기업은 견습생 훈련을 의뢰한 업체에 치를 비용으로 바우처를 쓸 수 있음
  - 견습세가 가져 올 경제적 효과로는 직업훈련 증가를 통해 견습세가 생산성 증가에 기여, 단기적으로는 임금상승억제라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견습세가 생산성 증가에 도움이 되면서 기업의 수익성 증가 및 임금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BIBB(2015), 「VET Data Report Germany 2014」

\*OECD(2015), 「OECD Employment Outlook 2015」

\*영국정부웹사이트(2016), 「Apprenticeship levy: how it will work」